

한국아동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나타난 직역과 중역: 아동문학 『마당을 나온 암탉』 수출 사례를 중심으로*

안 수 경
(한국교통대)

1. 서론

한류의 열풍이 심상치 않은 요즘이다. 한류(Korean Wave)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일컫는 신조어로 1990년대 처음 사용되었다. 한류의 초기(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한국 드라마와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유행 현상은 일부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났다. 최근 들어 한류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심 콘텐츠 또한 다양해졌다.

이와 더불어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번역학내 아웃

* 본 연구에 대해 값진 조언과 도움을 주신 성승은 교수님과 신보정, 박경미, 신혜진 학우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본 연구의 부족한 점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조언을 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운드 번역(outbound translation)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는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¹⁾. 하지만 아동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고, 『마당을 나온 암탉』의 경우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번역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었다.

한국어와 같은 주변어(peripheral language)의 경우 아웃바운드 번역 과정에서 모든 번역을 직역(direct translation)²⁾하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아웃바운드 번역 과정에서 직역과 중역(indirect translation)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때 중심어(central language) 번역서의 출간은 중역의 증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중역 연구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은 2000년 국내 출간 이후 여러 국가에 판권이 수출되었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해당 과정에서 모든 언어의 번역서가 한국어에서부터 직역되었는지 궁금하였다. 본고는 『마당을 나온 암탉』의 수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과 중역의 현주소를 탐색해볼 것이다. 번역서를 언어 및 시기별로 나누어 직역과 중역의 분포를 살펴본 후 해당 과정에서 중심어 번역서의 출간이 중역과 상관관계를 이루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역과 중역 번역가의 언어적 특징도 찾아볼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아웃바운드 번역과 중역에 대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3장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배경과 자료 수집 방법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번역서 출간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한 후 아웃바운드 번역을 직역과 중역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5장 논의 및 결론에서 한편의 한국문학 텍스트가 어떻게 해외로 뻗어나가는지 추적해본 결과를 토대로 아웃바운드 번역의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
- 1) 최근 번역학 관련 학회의 학술제 주제로 아웃바운드 번역이 채택되었다. 지난 7월 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의 국내 학술대회 주제가 “아웃바운드 문학번역”이었다. 9월에 “한국문학 아웃바운드 번역의 변화: 누가, 왜, 어떻게”란 주제로 포커스 그룹 대토론회가 열렸고, 한국문학 수출과 관련된 번역사, 출판사, 기관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 2) 중역(indirect translation)에 반하는 개념으로, 번역방법(translation method) 중 의역(free translation)에 반하여 사용되는 직역(literal translation)과 구분되고, 또한 번역전략의 직접 번역(direct translation)(Vinay and Darbelnet 1995/2004; Munday 1988/2012에서 재인용)과도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한국문학을 다른 문화권에 소개하고 알리기 위한 학계 및 출판업계의 노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없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많았고, 그 이유를 번역에서 찾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국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했을 때 해당 작품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만연하였고, 번역서 출간 이후 해당 번역서가 인기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번역에서 그 이유를 찾기 쉬웠다. 주로 번역의 품질 또는 아웃바운드 번역의 한계 등을 논하였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문학의 작품성은 높는데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아서 외국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강 『채식주의자』의 번역서 *The Vegetarian* (Deborah Smith 번역)이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³⁾을 수상하면서 한국문학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 학계와 출판업계의 관심이 증폭된 동시에 아웃바운드 번역에 대한 논의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번역서의 번역 품질에 대한 비판은 여전했지만 아웃바운드 번역의 한계를 문제 삼기보다 누가 번역해야 할 것인가, 즉 번역가의 구사 언어와 번역 언어 방향성에 대한 논의로 한 단계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2.1 아웃바운드 번역

한국문학의 경우 외국어로 번역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를 아웃바운드 번역, 반대로 외국문학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를 인바운드 번역으로 나눌 수 있다(이상빈 2019). 국내에서 아웃바운드 번역이란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

3) 맨부커상은 1969년 제정되었고, 노벨문학상,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리는 권위있는 상이다. 이 상의 일환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은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 출간된 소설에 수여한다(창비뉴스 2016).

되기 시작하였고, 아직 해당 키워드로 직접 검색하여 찾을 수 있는 국내 연구는 많지 않았다(2021년 12월 10일 검색). 하지만 한국문학의 해외 수출 관련 연구가 지금껏 없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미 번역학 뿐 아니라 다수의 외국어 학문 분야에서 한국어에서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로 번역된 작품을 다루는 연구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웃바운드 번역 연구가 부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의 주제를 들여다보면 번역서의 번역 품질에 대한 논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주로 오역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이형진 2018).

아웃바운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아웃바운드 번역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도 있었다. 마승혜(2014)는 ‘인바운드/아웃바운드 번역’과 ‘번역가’를 결합하여 한국문학 번역가를 인바운드 번역가(외국인 번역가가 자신의 모국어, 영어로 번역)와 아웃바운드 번역가(한국인 번역가가 모국어인 한국어 원작을 읽고 영어로 번역)로 분류한다. 한국문학을 한국인이 번역하는지 외국인이 번역하는지 기준으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말하는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인 아웃바운드 번역과 다소 차이가 있다. 아웃바운드 번역은 누가 해야 하는가, 즉, 번역가의 구사언어와 번역 언어의 방향성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출발언어인 한국어가 모국어인 번역가가 해야 한국문학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도착언어가 모국어인 번역가가 해야 도착언어로 표현이 수려하다는 서로 다른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

아웃바운드 번역의 출발은 어떤 작품을 번역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이때 선택 기준은 보통 국내 판매 부수, 번역 언어 수와 판권 수출 국가, 수상 기록, 이외 독자/시장/문단의 평가 등이다. 다시 말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확보한 작가를 찾아서 발굴하는 것이 아웃바운드 번역의 출발점이다(문일완 2021). 아 이러니 한 것은 아웃바운드 번역의 성공 지표 또한 앞서 언급한 작품의 선택 근거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판매 부수, 번역 언어 수와 판권 수출 국가, 수상 기록, 그리고 독자와 시장과 문단의 평가 등이 아웃바운드 번역서의 선택 기준인 동시에 수출 성공 지표가 되는 것이다. 국내의 성공이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되고,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작품의 경우 국내에서 다시금 관심을 받게 되는 선순환 구조인 것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근거로 국내 아웃바운드 번역의 성공사례를 들어본다면 신경숙 작

가의 『엄마를 부탁해』, 한강의 『채식주의자』,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을 TOP 3로 꼽을 수 있다. 아웃바운드 번역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작가들은 해외 시장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후 동 저자의 다른 문학작품은 계속해서 해외의 관심을 받게 된다.

본고의 연구목표는 한국문학이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는 현상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본고의 아웃바운드 번역은 이상빈(2019)의 정의를 따르며 모든 외국어로의 번역을 의미한다. 한국문학의 수출 사례에서 한 작품이 다수의 언어로 번역되는 모든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 『마당을 나온 암탉』이 출발언어 한국어에서 도착언어로 직접 번역되는 경우와 매개 텍스트를 통해 중역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2.2 아웃바운드 번역과 중역

중역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 중역 관련 메타언어가 함의되지 못하였고(Pym 2011; Ringmar 2007; Gambier 2018), 이는 국내 중역 관련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김정아와 임은선, 2020; 의사코바 2020; 성승은 2020). 간단히 살펴보면 중역은 번역의 번역을 일컫는다(Gambier 1994; 2003). 하지만 직역과 중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번역에 참여한 최소 언어 수, 매개 언어의 유형, 매개 텍스트의 수용자 등에 따라 중역의 연구 범주는 달라질 수 있다(Pięta 2019).

최근 중역 관련 연구는 중역은 어디에서(지역 분포 외 텍스트 유형이나 매체를 포함), 왜,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Pięta 2019). 중역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원문을 번역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언어 간 직접 번역이 가능한 인력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중역이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출판사가 매개본을 통한 중역을 선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직접 번역이 가능한 인력을 구할 수는 있으나 해당 번역가의 번역 경험이 부족한 경우, 오히려 경력 있는 번역가를 확보하여 매개본을 통해 중역을 하는 것이 출판사 입장에서 부담이 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종 번역서의 품질 제고나 시

간적 효율성 또는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출판사는 중역을 선택하기도 한다 (Ringmar 2007).

중역 관련 선행연구 중 중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경우도 있었다. 번역이 이미 그 자체로 오역이나 번역 품질 관련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중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만연했기 때문에 중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역했다고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매개본에 오역이 있는 경우 중역은 어쩔 수 없이 해당 오역을 옮기게 되고, 이를 중역의 한계로 지적하기도 한다(Hadley 2017). 하지만 이에 반하여 중역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재고하는 연구도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Ivaska and Paloposki 2018; Alvstad 2017).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중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아웃바운드 번역과 중역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실제 중역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최근 중역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메타언어 “Indirect translation”을 차용하고(Rosa, Pięta and Bueno Maia 2017; Ivaska and Paloposki 2018), 원문을 다른 언어로 옮긴 번역서인 매개 텍스트(mediating text)를 기반으로 하여 다시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Kittel and Frank 1991/한글번역은 성승은 2020에서 재인용). 직역(direct translation)은 이와 반대로 원문에서 직접 다른 언어로 옮긴 경우를 일컬으며, 번역가가 원문에서 직접 자신이 구사할 수 있는 모국어 또는 외국어로 번역한 경우를 지칭하고 이때 중간 매개 텍스트는 없다.

또한 본고는 중역의 모호함이나 중역에 대한 오래된 관행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중역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바이다. 세계화로 인해 전세계의 이동이 활발해졌고 동시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구사 인구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 이력을 추적해본 결과 한국문학 작품을 다수의 외국어로 직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중심어 이외 언어로의 번역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아 보였다. 힌디어 번역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직접 번역하였으나 최근에는 번역지원 사례가 거의 없었다. 한국문학의 번역서가 출간되지 않았거나, 만약 출간되었다면 중역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슬로베니아어 또는 페르시아어의 경우 불과 3~5년 전부터 직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전에는 번역되지 않았거나 중역되었

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2.3 중역과 언어의 위계

언어 간의 위계는 중역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과 중역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언어 간의 위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Pięta, 2019).

언어의 위계를 살펴보면 세계 언어를 초중심어(hypercentral position), 중심어(central position), 준중심어(semi-central position), 주변어(peripheral position) 등 4개 레벨로 분류하거나(Heilbron 2010), 조금 간결하게 중심어(central language)와 주변어(peripheral language)로 나누어 볼 수 있다(Alvstad 2017). 물론 모든 언어는 이미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언어의 위계를 나누고 중심어와 주변어로 분류한다는 자체에 대해 반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학자들이 세계 언어를 중심어와 주변어로 분류한 목적은 번역(또는 중역)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아웃바운드 번역이 뻗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의 주변어에서 출발하여 중심어로 먼저 번역되고, 이후 중심어 번역서를 매개본으로 하여 다른 주변어로 중역되어 퍼져나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출발 텍스트와 최종 도착 텍스트 사이에 매개 언어가 중심어인 경우 해당 중심어 문화에 대한 선호 현상이나 우위에 따라 중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시 말해, 대표 중심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세 가지 언어로 된 번역서의 존재 자체가 해당 저자가 번역할 만한 작품을 썼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는 주장이다(Ringmar 2007; Marin-Lacarta 2018). 이 경우 한국문학 작품을 직역하기 부담스러운 다른 주변어 국가는 중심어 번역서의 출간과 시장반응을 통해 해당 작품의 작품성을 우회적으로 확인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아웃바운드 번역과 중역이 확대되는 시점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와 같은 중심어로 된 번역서의 출간과 중역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텍스트 선정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와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은 이후 번역 관련 연구들이 다수 있었던 반면 아동문학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도서가 출간되고 나서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으며, 이후 도서와 애니메이션이 함께 수출되어 인기를 얻었던 독특한 사례이다. 작품의 인기만큼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관심을 보였다. 연구 주제와 분야별로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고(최남정과 김성숙 2014; 황혜순 2016; 전정숙 2012; 조미라 2013; 김윤아 목혜정 2012), 작품 속 내용과 관련하여 죽음이나 모성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며(박혜숙 2012; 김상한 2010), 동화와 애니메이션을 비교한 연구(이종호 2012)도 있었다. 하지만 번역 관련 논의는 한국어와 아랍어 텍스트를 비교했던 곽순례(2018) 연구가 유일하였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한국 내 출판업계에서 성공한 아동문학으로 꼽히고, 영어 번역서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김지영 번역)도 2013년 출간 이래 미국과 영국에서 놀라울 만큼의 조명을 받았다(이재훈 2012; 신창용 2014). 2021년 현재까지 총 27개 언어로 36개국에 판권이 팔렸으며⁴⁾ 터키어 번역서는 2021년에 재출간 되었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출간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판과 특별판이 출간되었던 점을 미루어보아 당분간 그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별판 홍보 문구 중 “전 세계가 응답한 앞썩(주인공)의 용감한 여정”⁵⁾이란 대목은 해외에서의 성공이 해당 도서의 국내 재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도서의 국내 인기와 아웃바운드 번역의 성공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4) 곽순례(2018)는 29개국으로 판권이 팔렸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020년까지 번역 언어와 번역서의 출간 국가가 추가된 것을 반영하여 수치를 수정하였다.

5) 교보문고 20주년 특별판 상품정보 available at 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barcode=9791160946635

3.2 연구방법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웃바운드 번역 과정에서 중역은 중심어를 매개(mediating)로 이루어지고, 대표적인 중심어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마당을 나온 암탉』의 수출과 관련하여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중심어로서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먼저 프랑스어를 매개로 중역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고⁶⁾, 독일어는 오히려 영어에서 중역되었다. 오랜 시간 한국문학의 수출에 힘써오고 있는 KL 매니지먼트 이구용 대표는 한국문학의 수출이 가장 어려운 나라로 프랑스를 꼽는다(문일환 2021). 프랑스어 번역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두드러진 결과도 없고 판매 부수도 많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본고의 중역 논의를 위한 중심어는 영어로 한정하였고 직역과 중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먼저 직역은 한국어(Source Text)에서 영어 외 기타 언어(Target Text)로 직접 번역된 경우이다. 반대로 중역은 한국어(ST)에서 영어 매개 텍스트(Mediating Text)를 거쳐 기타 최종 언어(TT)로 번역된 경우이다. 논의 중 혼돈을 피하기 위해 언어별 작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것이다.

ST: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2000) (한국어)

MT: 김지영 번역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2013) (영어)

TT: 한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의 번역서

텍스트 선정 후 분석데이터 수집을 위해 먼저 한국어 텍스트 4종(2000년 2권, 2020년 2권)과 영어 번역서(2013년)를 살펴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는지 확인한 후 도서관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번역서, 번역가, 번역가의 이전 경력, 기타 서지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번역가의 구사 언어를 기반으로 직역과 중역 여부를 분류하였다. 직역의 경우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도서목록(2001-2020년)을 추적하였으며⁷⁾, 중역의

6) 반디 소설 『고밭』의 경우, 프랑스어 번역서를 매개로 중역이 이루어졌다(성승은, 2020). 프랑스어를 매개로 중역된 경우가 없었다는 점은 『마당을 나온 암탉』에 한정한다.

7) 대산문화재단도 살펴보았으나 『마당을 나온 암탉』의 번역 지원은 없었다. 따라서 본고의 직역 분석은 모두 한국문학번역원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경우 각 번역가의 이전 번역 경력을 확인하여 한국어 텍스트와 영어 텍스트 중 어느 것을 출발 텍스트로 삼아 번역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시간이 걸리긴 하였으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번역가의 이전 번역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해당 번역가의 구사 언어를 추측하여 중역 여부를 분류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아웃바운드 번역서 출간 현황

『마당을 나온 암탉』은 2000년에 한국에서 출간되었고 2003년에 일본어로 처음 번역되었다. 이후 2011년이 되어서야 중국어와 기타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영어 번역은 2010년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서로 선정되었고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 출간되었다⁸⁾. 본고는 분석을 위해 영어 번역서의 번역이 결정된 시점과 영어 번역서가 출간된 시점을 중심으로 시기를 나누었다. 두 시점을 기준으로 아웃바운드 번역의 초기, 중기, 후기를 구분하였고, 각 언어별로 번역서의 출간 연도를 분류하였다. 중심어 번역서 출간 전후로 아웃바운드 번역서의 출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아웃바운드 번역서 출간 현황

시기	초기	중기	후기
연도	2000~2009년	2010~2013년	2014~2020년
영어 번역서(MT)	MT 번역 이전	MT 번역지원 확정 이후 출간까지	MT 출간 후
번역 언어	일본어	(영어 외) 중국어 포함 5개 언어로 번역	독일어 포함 20개 언어

먼저 초기에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서 처음 아웃바운드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중기에 영어 번역서의 번역 지원 결정 후 실제 번역서가 출간

8) 미국과 영국 번역서는 표지 및 삽화의 일부 차이를 제외하고, 텍스트 내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영어 번역서의 출간 연도는 2013년도로 통일하였음을 밝힌다.

되기까지 3년 여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주로 한국과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국가에서 번역서가 출간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물론 프랑스어와 폴란드어 번역서도 이때 출간되었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번역에 지리적 위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후기에 영어 번역서의 출간 이후 20개 언어로 번역서가 출간되면서 아웃바운드 번역의 언어 확산이 가속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4년에 독일어를 포함해 11개 언어로 번역서가 출간된 점을 살펴보면 중심어 번역서의 출간이 중역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중심어 번역서의 출간이 중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웃바운드 번역서를 출간연도 기준으로 직역과 중역으로 나누어볼 것이다.

4.2 중심어 번역서의 출간이 미치는 영향: 직역과 중역

다음은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아웃바운드 번역의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번역서의 출간 연도를 기준으로 아웃바운드 번역을 직역과 중역으로 분류하여 언어별로 정리한 표이다.

〈표 2〉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아웃바운드 번역: 언어별, 시기별 직역과 중역의 분류

번역서 출간 연도	2003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직역	일본어	중국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몽골어 루마니아어			
중역					아랍어 독일어 스페인어 그리스어 태국어 헝가리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싱가포르어	스웨덴어 쿠르드어	페르시아어	핀란드어	타기어
	직역			직역 + 중역			중역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아웃바운드 번역을 살펴보면 언어별로 직역과 중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3년 영어 번

역서의 출간 이전 시기에 주로 직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 목록을 확인해보면 직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언어는 영어이다. 영어는 지난 20년간 번역지원 작품의 총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어(15%), 일본어(11%), 프랑스어(9%)가 뒤를 잇는다. 이들 언어는 한국문학 작품의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비교적 직역의 비율이 상위를 차지하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번역서의 출간 이후 일부 번역은 직역으로 이루어지지만 영어 번역서 출간 직후인 2014년에 중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변어와 주변어 간의 번역이 이루어질 때 중심어가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위 표는 한국아동문학 텍스트도 아웃바운드 번역의 초기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를 중심으로 번역서가 출간되다가 영어 번역서의 출간 이후 다양한 언어로 직역과 중역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직역이 가능한 인력 풀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언어 중에도 일부 중역된 언어를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체코어, 이탈리아어 등은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 목록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년간 지원 사업을 통해 꾸준히 한국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이 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당을 나온 암탉』의 경우 영어를 매개로 중역이 이루어진 것은 눈여겨볼만 한 부분이었다.

4.3 아웃바운드 번역가의 특징

『마당을 나온 암탉』의 번역서 대부분은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출간되었다. 이에 반해 일본어 번역서는 2003년에 비교적 빨리 출간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번역가의 독특한 배경이 있었다. 일본어 번역가 변기자(ヒョン·키ジャ)(1940-2012) 작가는 일본 오카야마 현에서 ‘재일조선인’ 2세로 태어났으며 한국아동문학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생전에 번역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또한 일본어를 제외한 직역 번역가들 사이에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의 이전 경력을 추적해보면 한국문학번역원 내 번역아카데미 출신이거나 번역지원 작품에 선정된 경험(최대 5회)이 있는 번역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직역 번역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국어, 폴란드어, 프랑스어의 경우 번역 과정에서 한국어 번역가와 도착언어 번역가의 협업이 있었다. 도착언어 번역가의 언어적 배경을 살펴보면 출발언어인 한국어를 구사하지 않거나 단독으로 번역할 수 있을만하다고 짐작할 만한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도착언어 번역가의 역할은 주로 한국어 번역가의 번역 내용을 감수하는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자가 아닌 공동번역가로 명시되어 있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직역된 번역 언어는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몽골어, 루마니아어 등 총 7개 언어이다. 영어와 불가리아어는 한국인 번역가가 모국어인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하였고, 이 둘을 제외하면 모두 도착언어 번역가가 외국어인 한국어에서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하였다.

영어 번역서 출간 이후 주로 영어를 매개로 한 중역이 아웃바운드 번역의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일부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태국어나 싱할리어(스리랑카어)와 같은 경우도 영어를 매개어로 사용한 점이 눈에 띄었다.

중역 번역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100% 영어를 매개로 하여 도착 언어로 번역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번역가는 영어 텍스트를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했던 이력이 있었으며, 일부 번역가는 영어 외 다른 매개어를 함께 활용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터키어 번역가는 영어와 스페인어 작품을 주로 번역한 이력이 있었고, 쿠드르어 번역가의 경우 언어적 특성으로 짐작컨대 영어와 아랍어를 함께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싱할리어 번역가의 경우 번역 이력을 살펴보면 다양한 언어의 출발 텍스트를 번역하였고, 번역 이력에서 번역서 간의 언어적 일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해당 번역가가 10개 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영어를 매개어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되어 중역으로 분류하였다.

5. 논의 및 결론

5.1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본고는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아웃바운드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 시스템과 출판업계의 중역관행에 대해 살펴본 것에서 몇 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마당을 나온 암탉』은 아동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 연구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작품이다. 문학과 상품성을 동시에 지닌 텍스트로 해외 수출에 성공했던 한국문학 대표작인데 불구하고 『엄마를 부탁해』와 『채식주의자』와 비교하여 학계의 관심이 매우 적었다. 본고는 『마당을 나온 암탉』의 해외수출 성공사례를 심도 있게 논하며 해당 텍스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한국문학 아웃바운드 번역의 현재를 살펴보면 직역과 중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번역 논의는 대부분 직역과 중역을 별도의 주제로 다루고 있으나, 아웃바운드 번역을 들여다보면 언어에 따라 직역과 중역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번역은 세계 문학 시스템(world system of translation)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언어 간 (위계)관계에 영향을 받고, 그 과정에서 주변어가 중심어를 거쳐 다른 주변어로 뺏어나가는 현상을 보인다. 한국 문학 또한 중심어 이외에 해외 여러 국가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직역과 중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성승은, 2020). 보통 중역은 언어 간 직접 번역이 가능한 인력이 부재한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역은 다양한 이유로 행해질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번역 언어 중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는 국내에서 직역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로 중역을 실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표적인 예시일 것이다.

셋째, 중심어 번역서의 출간 여부는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중심어 번역서의 출간은 단순히 하나의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보통은 기타 다수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되어 준다.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아웃바운드 번역에서도 언어별 번역서의 출간 흐름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영어 번역서의

출간 이후에 중역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실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번역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웃바운드 번역의 초기에는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해본 경험이 있거나 비교적 한국문학과 친숙한 번역가가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서 번역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영어 번역서의 출간 전후로 직역과 중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동시에 다양한 이력을 가진 번역가가 아웃바운드 번역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번역가의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수월해졌고, 본고에서는 번역가의 번역 이력을 통해 구사언어를 짐작하여 중역 여부를 추적하였다. 지금까지 중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Alvstad 2017; Hekkanen 2014; Ivaska and Paloposki 2018) 중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측면에서 직역과 중역을 구분해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은 중역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최근 중역에 대한 인식이 다소 바뀌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공유가 수월해졌을 뿐 아니라, 드라마나 문학 작품의 해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류의 지역적인 한계가 없어지는 동시에 아웃바운드 번역 언어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직역만으로 한류의 인기를 따라가기 어려워졌고 자연스럽게 중역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의 번역 또한 영어를 매개로 중역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박민제 2020). 아웃바운드 번역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일부 매체가 중역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점은 중역 연구에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와 의의

『마당을 나온 암탉』은 한국아동문학의 해외 수출사례 중 대표성을 갖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한 작품의 사례만으로 한국아동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 현황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또한 아웃바운드 번역을 직역과 중역으로 구분하기 위해 번역가의 번역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해당 번역가의 구사언어를 짐작하였으나 여전히 사실과 일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일 것이다. 한국문학 작품을 해외에 소개할 때 직역 가능한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중역을 선택할 수 있음을 실제 자료를 근거로 보여주고

있지만 왜 그런지 보다 심층적인 조사 및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번역자 후기 또는 번역가 인터뷰 등을 통해 중역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한국문학의 해외수출 과정에서 한국문학 작품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확산되는 아웃바운드 번역 과정을 조망해본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웃바운드 번역이라는 큰 그림 내에서 직역과 중역 관련 논의를 함께 담아낸 점에서 향후 번역학 내 중역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순례 (2018)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아랍어 번역에 관한 고찰」, 『아랍어와 아랍문학』 22(3): 93-120.
- 김상한 (2010) 「창작동화에 나타난 모성성의 의미 탐색: 『마당을 나온 암탉』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18: 157-174.
- 김윤아, 목혜정 (2012) 「한국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마당을 나온 암탉』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26: 109-129.
- 김정아, 임은선 (2020) 「『엄마를 부탁해』: 아랍어 번역본 텍스트 사례분석」, 『아랍어와 아랍문학』 24(1): 59-93.
- 마승혜 (2014) 『문학번역가의 모국어와 번역 성향의 상관관계 연구: 평가어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숙 (2012) 「마당을 나온 암탉과 강아지똥의 초월성」, 『동화와 번역』 24: 219-238.
- 성승은 (2020) 「한국문학의 해외 번역에서 중역과 저본의 영향」, 『동서비교문학저널』 53: 149-174.
- 의사코바 아이누라 (2020) 「엄마를 부탁해 러시아어 중역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영어번역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상빈 (2019) 「번역문체 비교 연구: 소설 『유형의 땅』과 인바운드 vs 아웃바

- 운드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1(3): 125-148.
- 이종호 (2012) 「동화와 각색 애니메이션의 서사학적 비교 연구 『마당을 나온 암탉』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56: 35-96.
- 이형진 (2018)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논란과 논쟁을 번역하다, 『번역학연구』 19(4): 185-206.
- 전정숙 (2012) 「한국 장편애니메이션에 표현되는 리얼리티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연구: 『마당을 나온 암탉』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3(5): 477-487.
- 조미라 (2013)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죽음과 애도, 『조형미디어학』 16(4): 225-234.
- 최남정, 김성숙 (2014) 「애니메이션 『벼랑위의 포뇨』와 『마당을 나온 암탉』에 나타난 생명담론에 관한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3(2): 125-151.
- 황혜순 (2016) 「극장용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아동콘텐츠상품으로써 부적합성 고찰-(1)», 『겨레어문학』 56: 197-242.
- Alvstad, Cecilia (2017) 'Arguing for Indirect Translations in Twenty-First-Century Scandinavia', *Translation Studies* 10(2): 150-165.
- Rosa, Alexandra Assis, Hanna Pięta, and Rita Bueno Maia (2017)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Terminological Issues regarding Indirect Translation: An Overview', *Translation Studies* 10(2): 113-32.
- Gambier, Yves (1994) 'La retraduction, retour et détour', *Meta* 39(3): 413-417.
- Gambier, Yves (2003) 'Working with Relay: An Old Story and a New Challenge', in Luis Pérez González (ed) *Speaking in Tongues: Language across Contexts and Users*, València: Universitat de València, 47-66.
- Gambier, Yves (2018) 'Concepts of translation', in L. D'hulst, Y. Gambier (eds) *A History of Modern Translation Knowledge. Sources, concepts, effects*, Amsterdam: Benjamins, 19-38.
- Hadley, James (2017) 'Indirect Translation and Discursive Identity: Proposing the Concatenation Effect Hypothesis', *Translation Studies* 10(2): 183-197.
- Heilbron, Johan (2010)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World System of Translation', UNESCO, International Symposium 'Translation and

- Cultural Mediation’, Feb: 22-23.
- Hekkanen, Raila (2014) ‘Direct Translation - Is It the Only Option? Indirect Translation of Finnish Prose Literature into English’, in B. J. Epstein (ed) *True North: Literary Translation in the Nordic Centurie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47-64.
- Ivaska, Laura, and Outi Paloposki (2018) ‘Attitudes Towards Indirect Translation in Finland and Translators’ Strategies: Compilative and Collaborative Translation’, *Translation Studies* 11(1): 33-46.
- Kittel, Harald, and Armin Paul Frank (1991) *Interculturality and the Historical Study of Literary Translations*, Berlin: Erich Schmidt.
- Marin-Lacarta, Maialen (2018) ‘Mediated and Marginalised: Translations of Modern and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in Spain (1949-2010)’, *Meta* 63(2): 306-21.
- Munday, Jeremy (1988/201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Routledge: Newyork.
- Piëta, Hanna (2019) ‘Indirect Translation: Main Trends in Practice and Research’, *СЛОВО. РУ: БАЛТИЙ СКИЙ АКЦЕНТ* 10(1): 21-33.
- Pym, Anthony (2011) ‘Translation Research Terms: A Tentative Glossary for Moments of Perplexity and Dispute’, *Translation Research Projects* 3, Tarragona: Intercultural Studies Group, 75-110.
- Ringmar, Martin (2007) ‘Roundabout Routes: Some Remarks on Indirect Translations’, in Francis Mus (ed) *Selected Papers of the CETRA Research Seminar in Translation Studies 2006*, Leuven: CETRA, 1-17.
- Vinay, Jean-Paul and Jean Darbelnet (1995/2004) *Comparative stylistics of French and English: A methodology for translation* Vol. 11, John Benjamins Publishing.

[인터넷 자료]

- 문일완 (2021. 4. 12) 「[해외로 간 한국문학 특집] 한국문학을 부탁해 - 출판 저작권 에이전트 이구용」, 『월간 채널에스』, 2021년 5월 25일 검색.

- 박민제 (2020. 3. 28) 「폴란드어로 “세자 저하”... ‘킹덤2’ 넷플릭스 흥행의 숨은 공신」, 『중앙일보』, 2021년 12월 2일 검색.
- 신창용 (2014. 4. 10) 「<런던도서전> 황선미 ‘마당을...’ 英 공항·역 서점에 깔린다」, 『연합뉴스』, 2021년 5월 25일 검색.
- 이재훈 (2012. 4. 15) 「‘마당을나온암탉’ 미국에서는 어른동화, 판권수출」, 『뉴시스』, 2021년 5월 25일 검색.
- 창비뉴스 (2016) 「한강 『채식주의자』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2021년 5월 25일 검색.
-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지원도서 목록 (2001-2020)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 에서 2021년 5월 25일 다운로드,
Available at www.ltikorea.or.kr/kr/pages/archive/translationBook.do

[연구 텍스트]

황선미 (2000) 『마당을 나온 암탉』, 서울: 사계절.

[번역 텍스트 (번역가)]

- ピョン・キジャ (2003) 『庭を出ためんどり』, Japan: 平凡社.
- 文炫善 and 夏輦生 (2011) 『走出院子的母鷄』, China: 接力出版社.
- Lim Yeong-Hee and Françoise Nagel (2012) 『La poule qui voulait vivre sa vie』, France: Flammarion.
- Edyta Matejko-Paszowski and Choi Sung Eun (2012) 『Kwiaty Orientu』, Poland: Kwiaty Orientu.
- Kim, Jiyoung (2013)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US: Penguin Books.
- Nguyễn Thị Thu Vân (2013) 『Cô Gà Mái Xông Chuồng』, Taiwan: Nhà Xuất Bản Hội Nhà Văn.
- Dwita Rizki Nientyas (2013) 『Leafie 마당을 나온 암탉』, Indonesia: Qanita.
- سعيد الحسنية (2014) 『الدجاجة التي حلمت بالطيران』, Lebanon: Arab Science House.
- Simone Jakob (2014) 『Das Huhn, das vom Fliegen träumte』, Switzerland: KEin and Aber AG.

- Matuca Fernández de Villavicencio (2014) 『La Gallina Que Soñaba Con Volar』, Spain: Nube De Tinta.
- Αναστασία Καλλιωντζή (2014) 『Η ΚΟΤΑ ΠΟΥ ΟΝΕΙΡΕΥΟΤΑΝ ΝΑ Π ΕΤΑΞΕΙ』, Greece: Διόπτρα.
- Lidia Luther (2014) 『Flora Hen - Uma fábula de amor e esperança』, Brazil: Geração.
- งามพรรณ เวชชาชีวะ (2014) 『นัตติปีกของผลิบ』, Thailand: โพธิ์งาม.
- Szabó T. Anna (2014) 『Rügy - A tyúk, aki repülésről álmodott』, Hungary: Athenaeum.
- Erica van Rijsewijk (2014) 『De kip die dacht dat ze kon vliegen』, Netherlands: Altamira.
- Matuca Fernández de Villavicencio (2014) 『La gallina che sognava di volare』, Italy: Bompiani.
- Е. А. Хохлова (2015) 『Курочка, которая мечтала летать』, Russia: Центрполиграф.
- ඩි.එම්.එස්.රයිස්වික් (2014) 『රුග් උනන්ට සිහි දකිමි』. සහ චිත් ' රක ගන , Sri Lanka.
- Ninni Holmqvist (2016) 『Hönan som drömde om att flyga』, Sweden: Norstedts.
- 수령 (2016) 『Хашаанаасаа гарсан эм тахиа』, Mongolia: Admarket LLC.
- Iolanda Prodan (2016) 『Găinușa care voia să zboare』, Roumania: Editura Arthur.
- محمد قصاع (2017) 『مرغی که آرزوی پرواز داشت』, Persia.
- Hilla Hautajoki (2018) 『Kana joka tahtoi lentää』, Finland: Sitruuna Kustannus Oy.
- Pınar Savaş (2020) 『Uçabileceğimi Hayal Eden Tavuk』, Turkey: Genç Timaş.

[Abstract]

Direct and Indirect Outbound Translation of Korean Children Literature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An, Su-Kyou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both direct and indirect outbound translation of Korean children literature, 『마당을 나온 암탉』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in English), written by Hwang, Sun-mi in 2000. Having critical acclaim in Korea, this work has since been translated into 27 languages and published in 36 countries as of 2020. When a Korean book is exported to many countries, indirect translation is inevitable and it involves a process of translating Korean to another peripheral language via a central one and the process frequently increases after the translation of central language has been made available.

This paper tracks the outbound translation of the aforementioned work; i) to scrutinize the current practice of direct and indirect translation, ii) to see when indirect translation was significantly expanded and its connection to the publication of English translation, and iii)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translators of each direct/indirect translation.

The findings show that direct translation was conducted at the initial stage, and indirect translation was exploded right after the English translation was published. This paper calls for an extensive view on outbound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suggests the needs for discussion on both direct and indirect translations while most of previous research has treated them as a separate method.

▶ Key Words: Korean children literature, Outbound translation, Indirect translation,
Central language, Peripheral language

▶ 주제어: 한국이동문학, 아웃바운드 번역, 중역, 중심어, 주변어

안수경

한국교통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시간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 박사 수료

haengbok20@naver.com

관심분야: 학부번역교육, 아동번역, 중역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7일

심사완료일: 2021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2일